

불황...내란...여객기 참사...지역민 정신건강 '빨간불'

지난해 1~9월 '극단적 선택' 광주 329명·전남 444명 달해 '2023 정신건강' 응답자 65% "문제 경험"...2030이 70%대

광주·전남 지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로 인한 극단 선택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말 12·3비상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비보가 이어지면서 지역민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73명(광주 329명, 전남 444명)에 달한다. 한 달에 40여명 꼴이다.

같은 기간(1~9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 665명, 2023년 7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6% 넘게 증가했다.

정신 건강 상담 건수도 상승세다. 광주·전남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에는 지난해 2만1421건(광주 1만5168건·전남 6253건)의 정신건강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 정신건강 상담 신청 건수는 2021년 1만 6860건→ 2022년 1만 6153건→ 2023년 1만 6246건→2024년 2만14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긴급 상황이라 판단돼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건수 역시

2020년 684건에서 2021년 874건, 2022년 845건, 2023년 1126건, 2024년 1184건으로 증가 추세다.

센터 실무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특히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2월부터 지역에 12·3 비상계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영향을 미칠까 주시하고 있다.

실제 1980년 5·18 당시 고문 피해를 당했던 친구를 지켜봤다는 광주 시민 김모(여·68)씨는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더 커졌다"며 "최근에는 뉴스와 과거 기억이 자꾸만 머리에 맴돌아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광주·전남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지

역민이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3 광주시민 정신건강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455명)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72.9%, 30대 응답자의 72.3%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면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구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위기개입팀장은 "센터 상담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3분의 2로 가장 많고, 경제 문제 불화 등 일상적 갈등 등에 대한 상담이 3분의 1 수준이다"며 "물론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정신과적 문제의 경우 적극적인 외부 개입이 있으면 자·타해 등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비상계엄이나 제주항공참사, 유명인의 극단 선택 등으로 인한 암울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안과 직접 관계없는 지역민들 역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상담을 받는 등 외부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들은 배우처 지원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목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구급대원도 호신술 필요해 19일 광주 북구 문흥동 북부소방서 강당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구급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상황에 대비하는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노후 상가 '골칫거리'

광주 남구, 보수·해체 명령...책임소재·보상 갈등에 이행 불투명

붕괴 우려가 제기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노후 상가 건물 때문에 광주 남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수·보강 및 해체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건물이 기울어진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남구는 최근 방림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한 노후 건물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보수·보

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주는 60일 이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도시철도분부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당 건물에 안전등급 'E등급'이 나오면 따른 후속 조치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상 E등급은 붕괴 위험

이 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1987년 지어진 해당 건물은 공사장 방향으로 눈에 띄게 기울어졌고, 건물 곳곳에서 균열도 발견됐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에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축주는 지난 2022년 이뤄진 발파공사가 지반침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보수·보강 및 해체를 위한 책임소재와 보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해체나 보수·보강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분명해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북구 '광주 첫 스마트 경로당' 개소

스마트헬스케어 거점센터 조성...키오스크 교육 시설 등

광주시 북구가 광주 최초로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경로당' <2024년 10월 10일자 광주일보 12면>의 문을 연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스마트 경로당 40곳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해 과학기술부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했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교육용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 사용법을 익힐 수 있으며 실버 요가, 노래교실, 건강 체조 등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전문 간호 인력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자동 평형 검사, 치매 검사 등도 받아볼 수 있다.

또 ICT 기술을 접목해 두암 등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스마트헬스케어 거점센터를 조성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골밀도를 분석하는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선처해 달라"

화정아이파크 입주자협 '재건축에 악영향' 서울시에 탄원서

신축 도중 붕괴 사고를 겪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의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서울 시청을 방문해 "현대산업개발에게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 계획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최장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탄원서에서 "2022년 1월 상사

도 못한 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은 후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최근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장기간 영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여파가 준공, 입주, 아파트 품질까지 이어져 입주예정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